

멕시코 농촌지역의 종교적 다원화와 공유자원의 이용*

주 중 택
순천향대학교

주중택(2019), 「멕시코 농촌지역의 종교적 다원화와 공유자원의 이용」,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0(1), 1-32

초 록 라틴아메리카에서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한다. 그 중의 하나는 사회 내부에서 천주교도와 개신교도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개신교도들이 천주교도들과 대립하거나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면, 일부의 지역에서 보듯이 천주교도들이 중심이 되어 개신교도들에 대한 방화와 살인, 육체적 공격, 마을에서의 축출 등 매우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는 한 사회 내부에서 천주교도와 개신교도가 공존하면서 경쟁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악하여 서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천주교도와 개신교도의 참여로 새로운 형태의 협업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공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시도하는 사회에서는 각 개인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공동의 노력을 통해 자원을 보다 잘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이런 형태의 협업이 더욱 중요하다.

조사지의 경우에도 개종이 시작된 초기에는 소수의 개신교도와 천주교도 사이의 갈등이 부분적으로 나타났지만, 개신교도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오히려 대화와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두 종교집단 사이에 선의의 경쟁이 벌어져서 더욱 효율적으로 공유자원인 삼림자원이 활용되고 있다. 삼림자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안정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종교 집단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고 있다.

조사지에서는 마을이 소유한 공동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단결이 필요했고, 그래서 천주교도들은 개신교도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개신교도들도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천주교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마을 내의 주요한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된 까닭은 우선 이 마을은 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넓은 산림지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인구수에 비해서 마을의 공동토지인 산림지역이 풍부하고 소수의 힘으로 산 중턱에 있는 농지를 경작하기 어려워서 경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4450)

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지 않는다. 이런 실정에서 마을 사람들이 종교문제로 분쟁을 일으키면 경제행위에 엄청난 타격을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데 불리하기 때문에, 천주교도들과 개신교도들은 서로 협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신교도의 증가와 더불어 공유자원의 이용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화했다. 따라서 공유자원인 삼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요인인 종교적 다원화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 종교적 다원화가 집단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기보다 경쟁과 협력을 자극하여 공유자원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증가시키고 사회 내부의 응집력을 키우는 데 기여했다.

핵심어 공유재, 삼림자원, 종교적 다원화, 개신교, 천주교, 멕시코

I. 서론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세속화와 더불어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특히 많은 사회에서 종교를 소유하는 사람들의 수가 다소 줄어들거나 정체 되면서, 한 사회 내에서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에도 식민시대 이후에는 천주교가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최근에는 천주교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력이 눈에 띄게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천주교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사회 내부에서 천주교도와 개신교도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런 종교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역할과 의미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근래에는 한 사회 내부에서 천주교도와 개신교도가 공존하면서 경쟁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악하여 서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천주교도와 개신교도의 참여로 새로운 형태의 협업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공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시도하는 사회에서는 각 개인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공동의 노력을 통해 자원을 보다 잘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이런 형태의 협업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개신교의 성장 원인과 배경, 천주교와 개신교의 관계를 살펴본 다음에, 어떤 상황

과 조건에서 공유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개신교도와 천주교도들이 서로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협력을 하는지 구체적인 과정과 내용, 결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개신교도의 수는 20세기 후반에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개신교에 속한다(Freston 2004, 228). 21세기에 들어 증가 속도가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꾸준히 개신교도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에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사회에서 경쟁이 확산되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사회경제적, 혹은 정치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던 가난한 농민들과 원주민들이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면서 개신교로 개종을 하고 있다. 사회문화적으로 비교적 동질적인 원주민이나 농민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관계를 활용하여 종교적 다원화에 참여하고 있다(Stark and Smith 2010, 15). 원주민이나 농민 사회에서는 특정한 사회문화적 요인 때문에 천주교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져 개신교로 이동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는 공민적-종교적 위계체계(civil-religious hierarchy)인 카르고(cargo) 제도 등 천주교와 관련이 있는 사회제도나 관습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개신교를 선택하고 있다(Scotchmer 2001, 235). 사회적 변화가 급격한 시기에 천주교는 효율적으로 가난한 농민들과 원주민들의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확대되었다.

이에 반해 개신교는 사회의 주변부에 속하여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삶의 의미와 목표를 부여하고, 동시에 천주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천주교에서 개신교로의 개종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Cleary 1997; Cook 1994, 274; Dodson 1997; Escobar 1994, 31; Green 1993, 162; Kirk 1995, 246; Stoll 1990, 36). 결국 개신교가 성장하는 배경에는 신자유주의적 경제발전의 폐해,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계급분화의 확대, 도시나 농촌지역의 빈곤층의 증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많은 가난한 농민과 원주민들은 천주교회가 자신들에게 카르고 제도 등으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생산적 활동에는 그다지 도움을 주

지 않는다는 점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천주교회 내부에서 별다른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면서 불만을 가진 일부의 사람들은 금욕과 절제를 강조하는 개신교의 생활방식과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에 호의적인 평가를 하게 되었다(Bowen 1996, 138; Löwy 1996, 116). 실제로 멕시코의 농촌지역에서 개신교도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관습에서 탈피하여, 천주교도들에 비해 훨씬 적극적인 경제적 전략을 선택하고, 필요에 따라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하거나 협력하는 경향이 있다.

멕시코에서도 개신교의 성장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미지역과 비교하면 개신교의 성장률이 조금 낮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천주교도들이 개신교로 개종을 하고 있다. 특히 원주민의 비율이 매우 높은 치아파스(Chiapas)와 오아하카(Oaxaca) 같은 지역에서 개신교도의 증가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많은 미국과 캐나다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 것도 개신교 세력의 성장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미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국제노동이주가 활성화되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자연스럽게 미국에서 개신교를 접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개신교로의 개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제적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농촌이나 원주민 마을에서는 공유자원의 이용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구성원들 사이의 지나친 대립이나 갈등을 지양하고, 자율적인 사회적 합의와 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공유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경제적 혜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될 수 있고, 사회 내부에서도 불만이 줄어들 수 있다. 한편 이런 과정은 집단의 안정에도 도움을 주어, 장기적으로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공유자원을 이용하는 과정에 종교적 다원화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에서는 산림지역의 대부분이 마을 소유의 공유지이기 때문에, 공유자원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산림지역과 삼림자원에 관련된 현황을 파악할 필요

가 있다. 멕시코는 전체 면적의 1/3 이상이 산림지역이고, 산림지역의 80% 정도가 마을이 소유하는 공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산악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이나 농민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삼림자원을 이용하면서 생계를 해결한다(Charnley and Poe 2007, 310; Klooster 2003, 95). 삼림자원을 이용하는 구체적 방식은 삼림자원의 규모와 성격, 위치 등 각 사회의 생태적 환경과 더불어 인구 규모와 인구 구성, 경제활동의 성격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 결과적으로 삼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경제적 자원으로 활용하려면 구성원들의 조화로운 사회적 관계에 바탕을 둔 사회적 합의의 달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변화에 의해 이런 합의가 깨어지는 것을 막는 동시에 보다 바람직한 수준에서 합의가 유지되거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종교적 변화로 인해 사회문화적 환경이 변화되었을 경우에, 삼림자원 같은 공유자원을 체계적으로 이용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 내부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공유자원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과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II. 종교적 변화와 개신교의 역할

1. 종교적 다원화와 사회적 영향

라틴아메리카에 개신교도들이 증가하면서 종교적 다원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 최근에 라틴아메리카의 종교에 관심을 갖는 많은 연구들이 개신교와 천주교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다. 천주교는 식민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선교를 시작한 개신교는 천주교의 잘못된 과거의 행위를 지적하는 등 천주교의 부정적인 모습을 증점적으로 강조하게 되었다. 이런 개신교의 공격적인 태도 때문에 종교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좋은 여건이 형성된다(Dow 2001, 16). 개신교로 개종을 하는 사람들

이 그동안 사회에서 다양한 혜택과 특권을 누리던 천주교를 비판하면서, 개신교와 천주교 사이에는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개신교는 천주교가 선교를 목적으로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믿음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종교적 융합을 인정한 것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이렇게 되면서 라틴아메리카에서 종교적 이질성이 증가하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천주교에서 개신교로의 개종이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에서 갈등이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Bonner 1999, 6; Bowen 1996, 191; Cook 1994, 274; Westmeier 1999, 25). 물론 갈등의 양상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것은 아니다. 각 국가의 정책이나 지역사회의 성격에 따라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도 한다.

개신교도와 천주교도의 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지역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고립된 산간지대에 위치한 원주민 사회에 속한다. 원주민 사회에서는 식민시대에 천주교와 전통적인 원주민 신앙이 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천주교가 만들어졌다. 게다가 식민시대에 정복자들이 소수의 힘으로는 원주민 사회를 통치하기가 어려워지자 천주교 세력을 식민지배에 활용하였기 때문에, 천주교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한 개신교는 종교적 관습이나 이념, 제도, 의례의 형태 등 많은 부분에서 원주민 사회의 천주교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두 종교 사이에 교리와 신도들의 믿음과 행위를 두고 충돌이 쉽게 발생한다. 천주교를 계속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개신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원주민 사회의 동질성과 공동체적 성격을 급격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주종택 2004 28-29; Clarke 2000, 203; Marroquin Z. 1995, 91-99; Montes García 1995, 61-66). 그래서 원주민 사회의 지도자들은 새롭게 등장한 개신교 세력을 적대시하거나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며 여러 방식으로 탄압을 한다. 이런 실정에서 개신교도의 수가 많아지는 마을에서는 갈등이 많아진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치아파스 지역에서도 원주민 사회에서 개신교도들에 대한 탄압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 지역에서는 개신교도가 천주교도에 의해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거나 재산을 빼앗기

고, 신체적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Berkley Center 2013, 4; Bonner 1999, 6; Collier 1994, 56; Gros 1999, 179). 원주민 인구의 비율이 높은 오아하카 지역도 천주교도에 의해 개신교도들이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Montes García 1995, 26; Ramírez 1991, 91-99; 1995, 238). 치아파스 주에서 심각한 종교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지만, 종교적 갈등의 빈도는 오아하카 주가 훨씬 많다(Gross 2012, 203).

원주민 사회에서 천주교도들이 개신교 신도들을 탄압하는 이유는 대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문화적인 이유로 개신교의 유입으로 사람들이 기존의 천주교와 원주민 신앙을 부정하면서 원주민 사회가 독특한 정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Montes García 1995, 61-66). 특히 집합적인 공동체의 질서를 중시하는 원주민 사회에 개인주의에 영향을 받는 개신교도들이 늘어나면 사회의 유지가 곤란하다는 것이다(Gross 2012, 200). 이렇게 되면 원주민 사회의 고유한 속성이 사라지고 메스티소(mestizo) 사회와의 차별성이 사라지면서, 전통적인 사회적 기반이 와해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전통적으로 원주민이 믿는 신이 새로운 개신교의 등장으로 배척당하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신의 노여움을 사서 좋지 않은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인 이유로 사회 내의 부족한 공동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개신교 신도들을 원주민 사회에서 쫓아내려는 움직임이 있다. 대부분의 원주민 사회는 식민시대에 정복자들을 피하기 위해 고립된 산간지역이나 거주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토지 등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치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천주교 신도들은 개신교 신도들이 원주민 사회의 공유재산이나 자원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종교적 차이를 빌미로 개신교도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경제적 자원을 뺏으려고 한다. 셋째로 정치적인 이유로 전통사회의 권위가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고 개신교도들을 탄압한다. 천주교의 성인을 기리는 종교적 카르고인 마요르도미아(mayordomía)나 공민적-종교적 위계체계에 의해 원주민 사회는 정치적 질서가 확립되고, 이에 따라서 사회적 위신이나 정치적 권력이

주어진다. 그러나 개신교 신도들은 이런 정치적 구조가 천주교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참가하기를 거부하고(Clarke 2000, 203), 불합리한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민주주의적인 방식에 의해 정치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카르고 제도나 부역인 테키오(tequio) 등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의무에도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어 천주교도들은 개신교도들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 의무를 거부하기 때문에 마을에 거주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원주민 사회처럼 경제적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주류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어서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문화적 갈등은 정치적, 경제적 문제에도 영향을 미쳐서 갈등이 더욱 확산된다는 것이다. 한편 개종을 둘러싼 문제에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해지면서 과격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멕시코에서의 종교적 다원화는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의 갈등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는 견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물론 원주민 사회에서도 개종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거나 갈등이 미약한 경우도 있지만(Cahn 2005, 5), 이런 사회는 상대적으로 학자들의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2. 개신교의 새로운 변화와 역할

지금까지 라틴아메리카에서 개신교의 등장으로 인한 종교변화나 종교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보면 종교의 제도적인 성격과 사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는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려고 한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연구는 종교의 제도적인 측면만을 검토하면서 대중적이고 비공식적인 차원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Peterson 1996, 237). 다시 말해 이론적으로는 종교적 다원화의 현실에서 차이가 명확한 개신교와 천주교가 서로 대립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 그렇지만 종교행위에 있어서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면서 제도적 차이로는 파악하기 힘든 새로운 사회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즉

천주교도의 개신교로의 개종으로 개신교도와 천주교도가 대립이나 갈등 관계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개인들은 일상생활에서 필요에 따라 서로 협력하거나 선의의 경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

세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라틴아메리카에서도 개신교는 천주교보다 신도들의 경제활동에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천주교가 전통을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개신교는 정치경제적 변화에 기여를 한다는 주장도 있다(Bastian 1992; Scarritt 2013, 103; Turner 1979). 권위적 구조와 더불어 집단적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천주교에 비해, 개신교는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고 경제적 성과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빈곤의 경우에도 개신교도들은 이것이 사회적 문제라기보다 개인의 노동윤리가 부족해서 발생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Scheper Hughes and Campos Machado 2016, 9). 따라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개신교도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과는 상이한 입장을 취하는 천주교도들과도 협력하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자연스럽게 개신교도들의 생산 활동의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라틴아메리카에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산업화된 시장경제의 활성화가 촉진되었다는 주장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 한다(Dow 2001, 12; Westmeier 1999, 24-27). 결과적으로 개신교의 등장은 특정한 경제 활동을 부분적으로 촉진시킬 수도 있다(Bowen 1996, 138; Hallum 2003, 178; High 2016, 280; Kramer 2005, 98-99; Löwy 1996, 116). 즉, 개신교도의 입장에서 자신들과는 이념과 행위가 다른 사람들과도 적대적 관계보다는 우호적 관계를 통해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주교회와 개신교회의 신도들이 제한된 경제적 자원을 두고 서로 대립하기보다는 교류와 경쟁, 혹은 협력을 함으로써 얻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멕시코의 농촌지역에서 종교적 다원화가 진행되면서, 개신교도들이 카르고 제도 등 천주교에 기반을 둔 사회문화적, 정치적 관습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이것이 경제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카르고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공유자원이나 마을 단위의 공동의 경제적 행위가 카르고 제도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이다. 마을의 구성원들은 주기적으로 일정한 기간에 카르고 제도를 통해서 보수를 받지 않고 마을을 위해 봉사하면,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고 이에 상응하는 권리도 획득된다. 예를 들어 공유자원이나 공유지를 공동 혹은 개별적으로 이용할 권리, 혹은 그밖의 마을이 주도하는 경제행위에 참여할 권리가 부여된다. 실제로 에히도(ejido)를 포함한 공동토지에 속하는 경작지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동토지의 규모는 제한되어 있어서, 사용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가 감소하면 기존에 공동토지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그래서 종교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천주교도들이 개신교도들의 공동토지를 빼앗거나,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공유지인 산림지역은 사정이 다소 다르다. 멕시코의 대부분의 산간지역 마을은 마을의 인구 규모에 비해 대단히 넓은 산림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공유재산인 산림자원의 생산에 참여할 사람이 줄어들었다면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 산림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벌목 작업은 매우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협조와 참여가 불가피하다. 이런 실정에서 충분한 산림지역을 소유한 마을에서 천주교도와 개신교도로 나눠 종교적 다원화가 발생했어도, 효율적인 산림자원의 이용을 위해 갈등보다는 협력을 선택할 수 있다. 더욱이 개신교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서 오히려 경쟁을 유발시켜서 과거보다 공유자원인 산림자원의 이용이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될 여지도 존재한다.

공유지와 공유자원은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구성된 규칙에 따라 이용된다면, 지속적으로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다. 그렇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구성원들이 경쟁적으로 개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공유지와 공유자원을 이용하려고 시도하면, 자원의 남용으로 생태계가 황폐화되어 더 이상 공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변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산림자원

의 경우에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용방법을 협의하여 일정한 규칙을 준수하면서 이용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 사회에서 종교적 다원화로 구성원들의 종교행위와 종교적 이념이 달라졌다고 해도, 계속해서 삼림자원을 체계적으로 이용하려면 대립과 갈등보다는 협력이 중요한 전략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종교집단 간의 경쟁의식도 작용하여 더욱 바람직한 형태로 삼림자원이 이용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종교적 다원화가 사회 내에서 갈등을 유도하여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보다,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종교와 관련된 제도적인 관점에서 탈피하여, 실제 사람들의 행위를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등 다양한 시각에서 관찰하여 의미 있는 새로운 관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의 방법과 조사지

멕시코의 농촌지역에서 공유자원과 종교적 다원화와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려면, 개신교도의 비중이 어느 정도 높은 지역 중에서 공유지인 산림지역이 상당한 규모로 마을 내부에 존재하고 삼림자원의 생산과 이용이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자료수집을 위한 현지조사는 멕시코 오아하카 주의 누에보 소키아팜(Nuevo Zoquiapam)이라는 무니시피오(municipio)에서 수행되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면접과 참여관찰을 통해 종교와 공유자원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였다. 현지조사는 1994년 2월에서 5월까지, 이어서 1998년 2월에서 3월까지, 2016년 1월, 그리고 2017년 12월에 각각 수행되었다.

누에보 소키아팜은 멕시코 오아하카 주의 북서쪽에 위치한 마을로서 ‘익스틀란 데 후아레스’(Ixtlán de Juárez) 지구(distrito)에 속한다. 오아하카 주도인 오아하카 시에서 북쪽으로 54 km 떨어져 있다. 누에보 소키아팜은 멕시코의 대부분의 원주민 거주지처럼 산악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고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또한 ‘시에라 후아레스’(Sierra Juarez) 산맥이

지나가는 해발 2,000미터의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서 농업활동이 풍족하지 않으며, 농산물 생산도 소규모의 토지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삼림자원의 이용이 중요한 경제활동이다. 2010년의 인구센서스를 보면 마을의 인구는 1,652명이고 가구 수는 375호이다. 그중에서 6세 이상 인구는 1,418명이다. 가구당 평균 인구는 약 4.4명이고, 전체 가구 중에 여가장 가구는 89호로서 남자 가장의 수는 300명이 되지 않는다. 2000년 인구센서스에서는 마을의 인구가 1,757명이었다. 마을의 인구는 1990년대 초까지 조금씩 증가하다가, 미국으로의 국제노동이주의 영향으로 1990년대 말부터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과거에는 인구가 2,500명이 넘을 때도 있었다고 한다.

누에보 소키아팜이 속한 시에라 후아레스 산림지역은 멕시코에서도 목재나 기타 삼림자원의 생산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다(Barsimantov 2009, 51). 마을에서는 과거부터 생계의 중요한 부분을 산림지역에 의존하며 살아왔다. 주로 산림지역에서 벌목을 해서 뿔감을 구해서 집에서 사용하거나 판매했다. 또 산림지역에서 자라는 각종 식물이나 동물을 채취하거나 잡아서 먹거나 팔았다. 20세기 중반부터 오아하카 지역에서 목재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누에보 소키아팜도 나무를 잘라서 팔기 시작했다. 인근의 다른 마을과 마찬가지로 20세기 후반인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대대적인 벌채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순한 목재생산에서 탈피하여 경제적 수익을 올리기 위해 1986년에는 주도인 오아하카 시 인근의 제재소를 구입하여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마을이 산악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농업활동이 원활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삼림자원과 제재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사회적 기업을 통해 자신들이 직접 목재를 가공하여 판매하면서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수익성도 높아져서 마을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런 까닭으로 삼림자원에도 애착이 생겨서 이제는 삼림자원의 복원을 위해 새로운 어린 묘목을 매년 심는 등 생태계의 보호에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되었다.

인근의 다른 지역과 유사하게 누에보 소키아팜에서도 오래 전부터 개신교의

유입이 이루어졌다. 이 마을에서 처음으로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은 시프리아노(Cipriano)인데, 그가 1949년에 ‘라 콤브레’(La Cumbre)라는 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면서 안식일 교회의 신자가 되었다. 그 당시에는 누에보 소키아팜의 주변 마을까지 다양한 개신교 단체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1960년 이전에 산 후안 아테펙(San Juan Atepec)과 익스틀란 데 후아레스 지역에 미국인 선교사들이 누에보 소키아팜 사람들을 초대해서 성서에 대한 강의를 했다. 소수의 사람들은 영어를 배울 욕심으로 이 강의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고 한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마을의 천주교인들이 그들의 목적이 개신교의 선교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렇지만 개신교에 열성적인 사람들이 오아하카에 가서 교육을 받고 목회자가 되어 돌아왔다.

현재는 천주교회와 함께 ‘이스라엘 하느님의 교회’(Iglesia de Dios Israelita)와 ‘제칠일 그리스도 교회’(Iglesia de Cristo del 7° Día) 등 두 개의 안식일 교회 계통의 개신교회가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오순절 교회가 이 마을에도 1987년부터 존재했으나 신도들이 거의 없었고 마을 주민들이 개신교회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반대하면서 없어졌다고 한다. 그 밖에도 예수 재림교회, 장로교회 등 다양한 개신교 집단이 선교를 위해서 이 마을을 거쳐 갔다. 앞에서 말한 두 개신교회는 각각 300여명과 100여명의 성인 신도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 1963년과 1960년에 시작했다. 두 교회는 원래 하나였는데 1963년에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분리되었다. 교인 수는 천주교회가 가장 많아서 전체 인구의 ⅔ 정도를 차지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일요일의 미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매우 적다. 이에 반해 개신교도들의 예배 참석률은 매우 높다.

IV. 누에보 소키아팜의 경제구조와 공유자원

누에보 소키아팜은 전통적으로 농업과 목재생산을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형성되어 있다(주종택 2000, 340-341; 2017, 126-128). 마을이 계곡을 아래에 두고 산 윗부분에 조성되어 있어서 지역은 광범위하지만 농사짓기에 적합한 토

지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홍수를 피해 안전한 곳에 거주지를 마련하다 보니, 물이 흐르는 계곡에서 농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농업용수를 구하기도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토지가 관개시설이 결여되어 있는 천수답이다. 실제로 전체 토지 면적은 약 700 ha 정도 되지만, 단지 20 ha만 농업용수가 공급되고 있다. 가구당 약 2 ha의 경작지를 소유하고 있다. 토지 소유의 현황을 보면 ‘사유토지(pequeña propiedad)’는 전혀 없고, 식민시대 과거 원주민 사회에서 물려받은 마을 소유의 ‘공동토지(terrenos comunales)’만 존재한다. 주민들의 경제활동은 농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소수의 사람들이 상업 등에 종사하는 실정이다. 농업의 경우에도 생산량이 아주 많지 않아서 자급자족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는 못한다. 생계작물을 주로 재배하고 일부의 과일이 나 야채를 생산한다. 생산한 작물은 가구 내에서 먼저 소비를 하고, 남는 것은 오아하카의 시장에 가져다 판다. 교통도 편리하지 않아서 생산한 작물을 시장에 가져다 파는 것도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렇듯 토지의 질도 좋지 않고, 농업용수를 얻는 것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자연히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을의 규모에 비해 매우 넓은 산림지역을 활용한 삼림자원의 이용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주종택 2000, 342-343; 2017, 129-140). 마을의 전체면적은 9,534 ha인데, 그중에서 산림지역이 48.63%인 4,636 ha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지역 안에 있는 나무들의 수량도 풍부하고 수령도 오래 되어 좋은 목재를 생산할 조건을 갖추고 있다. 결국 인구에 비해 좋은 품질의 경작지가 충분하지 않아서 산림지역은 마을의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삼림자원의 규모는 인구에 비해 넉넉해서 마을 사람들의 상당수가 산림지역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누에보 소키아팜에서는 옛날에는 가구 내에서 필요한 물건을 만들거나 생활을 위해 삼림자원을 활용했다. 그 후에는 오아하카의 다른 마을처럼 철도의 침목을 위한 목재생산에도 가담했었다. 멕시코 혁명 이후에 철도를 확대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의해 침목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오아하카의 산림지역이 침목을 생산하는 일을 담당했다. 그러나 철도건설 사업이 종료되면서 침목에

대한 수요는 사라졌다. 그 후에 1950년대와 1960년대 초까지는 마을 단위의 목재생산이 이루어졌다. 마을 자체적으로 일이 필요한 사람들끼리 산에 가서 소규모로 벌목을 하여 팔았다.

오아하카 일대의 산림지역에서 본격적인 목재생산이 시작될 때에 이 마을에서도 1964년에 ‘투스텍펙 제지회사’(FAPATUX: Fabricas de Papel Tuxtepec)와 계약하여 목재를 채취하였고, 1981년에 계약이 종료되었다. 목재를 활용해 종이를 생산하는 FAPATUX와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에보 소키아팜의 삼림자원 이용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주종택 2015, 85-89). 대기업의 자본과 기술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목재생산이 가능해져 많은 마을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산림지역의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목재생산을 위한 도로가 개설되어 산간지역 마을의 교통편의가 증대되고, 일자리가 생겨서 경제활동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었다. 많은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농업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목재생산에만 매달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FAPATUX와 목재생산을 했던 누에보 소키아팜을 포함하여 많은 오아하카의 마을들이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벌목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FAPATUX가 지나치게 이익만을 추구하여 생산된 목재를 헐값으로 사들이고, 마을에 제공하기로 한 여러 혜택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또 지나친 벌목으로 잘 자란 나무를 많이 잘라서 산림지역의 환경이 훼손되고 토양침식이 진행된 지역도 있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많은 마을이 서서히 FAPATUX와 거래를 중지하였고, 마침내 누에보 소키아팜도 이 회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FAPATUX와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목재를 생산하여 인근의 제재소에 가져가서 팔았다. 보다 체계적인 목재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인근 지역 마을의 사례를 참고하여 “Unidad Económica Especializada de Aprovechamiento Forestal Comunal(UEEAFIC)”라는 조직을 구성하였다. 산림관리원(jefe de monte)과 조정관(coordinador), 회계원(secretario auxiliar de contabilidad), 및 기록원(documentador)을 두어 목재생산의 계획, 실행, 분

배, 판매 등 일련의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목재생산으로 발생하는 이익금도 공동자금으로 분류하여 마을 내의 여러 분야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또 산림 관리원은 마을의 공유재산을 책임지는 ‘공유재산 위원회’의 위원장 (comisariado de bienes comunales)과 협의하여 산림지역을 개발하도록 결정했다. UEEAFC에서는 해마다 목재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을 사람들의 수를 파악해서 벌목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하고, 각 개인이 벌목할 수 있는 목재의 양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 후에 개인에게 할당했다.

그 후에 직접 제재소를 운영하는 것이 이익을 창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목재생산으로 조성된 공동자금을 일부 사용하여 ‘아순시오 에틀라(Asuncion Etlá)’에 위치한 제재소를 1986년에 구입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오아하카 시에서 멕시코시티로 향하는 도로 변에 자리 잡고 있어서 누에보 소키아팜에서는 멀지만 오아하카 시내와 매우 가깝다. 또 팬아메리칸 하이웨이에 인접해 있어서 가공된 목재를 다른 지역으로 운송하는 데에는 매우 좋은 지리적 이점이 있다. 현재는 마을에서 자른 목재의 일부를 이곳에 가져가서 가공하고, 나머지는 오아하카의 다른 제재소에 판다. 전체 직원의 약 절반 정도가 누에보 소키아팜 사람으로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누에보 소키아팜에서 농경지가 부족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제재소에서 일하기를 희망한다. 종종 오아하카 시내로 일자리를 찾아서 마을을 나간 사람들 중에 제재소에서 일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 마을 소유의 제재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산된 목재를 제 값을 받고 판매를 할 수 있고, 또 훨씬 부가가치가 높은 형태로 목재를 가공하기 때문에 마을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충분한 여유를 두고 계획을 세워 목재를 생산할 수 있고, 수익금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져서 마을의 공동자금 운영도 한결 수월하게 되었다. 제재소를 활용한 삼림자원의 이용은 전반적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을 높여주고 다양한 방식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공동자금을 발판으로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을 꾸준히 실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게 되었다.

V. 누에보 소키아팜의 종교변화

조사지도 시에라 후아레스의 다른 마을과 유사한 시기에 개신교회가 들어 오게 되었다. 초창기에는 누에보 소키아팜에도 종교 간의 갈등이 나타났었다(주종택 2000, 344-346). 예를 들어 모든 대지가 공유지에 속하기 때문에 천주교도들은 천주교의 의무를 철저하게 수행하지 않는 개신교도들이 마을 부지에 개신교회를 설립하는 것을 방해했다. 그래서 개신교회의 한 신도가 자신의 집터를 제공하여 겨우 교회를 지을 수가 있었다. 예배를 보는 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마을 사람들이 많았고 한다. 한 때는 마을에서 개신교도들에게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개신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수가 100명을 넘어서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했다. 지리적으로도 고립되어 있고 경제활동을 위한 환경도 열악한 편이어서 개신교도와 천주교도들이 분열되어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기보다 서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확산되었다. 또 개신교에 소속된 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개신교도들처럼 모든 천주교회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구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어서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었다.

이 마을에서 개신교회와 천주교회가 본격적인 화합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1970년도에 새로운 거주지를 조성할 때였다. 원래는 현재의 주거지보다 아래쪽인 계곡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비교적 농업용수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농작물의 재배에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1969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대홍수가 일어났다. 계곡의 범람으로 거주지와 농경지가 완전히 물에 쓸려 내려갔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해야 했고, 산 중턱 부분을 선택하기로 했다. 산 중턱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개신교회의 역할은 매우 컸다. 두 교회의 목사들과 신도들은 일상불란하게 술선수범하여 주거지를 위한 대지를 구획하고 관공서와 학교 등을 짓는데 힘을 합쳤다. 이런 과정에서 개신교도들의 성실성과 근면함, 책임감이 인정되었고, 마을 내에서의 종교활동도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 개신교도들은 당시에 마을에 자신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생업을

뒤로 하면서 마을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한다. 한편 홍수 이후에 마을에서의 인식이 바뀌면서 개신교의 신도 수가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얻기도 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세 교회 사이에 여러 측면에서 경쟁이 치열했지만, 이때부터 마을 내의 여러 문제를 두고 세 교회 사이에 협조하는 분위기가 시작되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두 개신교회의 사람들이 무니시피오 의장에 선출되기도 했다.

이 당시에 두 종교 집단 사이에 협조가 잘 되기 시작한 이유는 모두 다 더 이상의 종교적 분열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즉, 천주교회나 개신교회의 입장에서 인구도 아주 많지 않은 마을에 더 이상의 새로운 교회가 들어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같이 노력을 해서 다른 종교나 교회의 침입을 막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과거에도 종종 오순절 교회나 다른 개신교회의 선교사들이 마을을 방문했을 때, 천주교도들보다 개신교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하고 방해했다고 한다. 천주교회에서도 더 이상의 개신교회는 받아들이 수 없고, 개신교회도 더 이상의 새로운 경쟁자는 원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천주교회의 입장에서는 신부가 마을에 항상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미사 때에만 방문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개신교회의 침입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그래서 새로운 개신교이 유입을 마을 내의 개신교회와 더불어 막으려고 한 것이었다.

천주교회와 개신교회의 대립과 갈등이 감소하면서 서로의 종교를 배려하는 다양한 현상이 발생했다. 그 중에서도 예배시간을 조정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일요일에 예배를 보는 천주교회와 달리 토요일에 예배를 보고 휴식을 취하는 안식일 교회는 마을 사람들의 생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에는 마을 ‘주민회의(asamblea)’를 원칙적으로 토요일에 개최하였다. 안식일 교회의 반발이 있었지만, 천주교회의 입장을 고려하여 토요일에 강행하였다. 그러나 개신교도와 천주교도의 협력이 시작되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70년 이후부터는 주민회의를 일요일과 토요일에 번갈아 가면서 열기로 결정했다. 그밖에 마을 행사나 공동부역 등도 토요일과 일요일에 돌아가면서 실시한다.

또한 마을의 성인 남성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카르고의 업무도 개신

교도들이 참여하면서 다른 마을과 같은 심한 갈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개신교도들은 마을의 정치, 경제와 관련된 공적인 카르고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심지어 개신교도들은 카르고 제도 중에서 천주교의 성인을 기리는 종교적 카르고인 마요르도미아(mayordomia)도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다. 천주교의 성인과 관련된 축제에 천주교 신도들과 함께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종종 기부금이나 물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천주교도들은 축제와 의례에 반드시 참여하지만, 개신교도들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되면서 두 종교집단 간에 더욱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누에보 소키아팜에서는 분열되기보다 서로 화합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유익하다. 우선 거주지가 산간지역에 위치해 있고 경제적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곤란하다(주종택 2000, 340-341). 경작지도 거의 비탈이고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농경지가 마을에서부터 거리가 매우 멀어서 힘들다. 산 중턱의 농경지에는 큰 돌이 박혀 있기도 해서 혼자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농기구의 경우에도 혼자서 필요한 장비를 모두 가져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농경지가 붙어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가서 서로 돕지 않으면 작물의 재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심지어 농경지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자주 갈 수가 없어서 다른 이웃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도 한다. 또 오아하카까지 거리도 멀고 교통편도 자주 없어서 시장에 나가서 자신들이 생산한 작물을 판매하는 것도 문제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직접 오아하카의 시장에 가는 대신에 다른 사람이 오아하카에 갈 때 자신들의 작물을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흔하다. 결국 농업 분야뿐 아니라 산림지역에서 벌어지는 삼림자원의 개발에서는 마을 사람들 사이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

VI. 누에보 소키아팜의 공유자원 이용과 개신교의 역할

식민시대 이전이나 식민시대에 종교가 사회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던

라틴아메리카 사회에서는 종교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으며, 종교 세력이 아직도 사회에서 무시하지 못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라틴아메리카 사회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종교의 역할이 일정한 수준에서 꾸준하게 유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교적 다원화는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상 중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가 중심이 된 사회에 개신교 세력이 새롭게 들어오면 당연히 두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알력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개신교회는 역사적으로 지속되었던 천주교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공격적 선교를 펼치면서 신도를 끌어들이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종교적 다원화는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집단 사이에 분쟁을 유도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

그렇지만 모든 지역에서 종교적 다원화가 항상 유사한 영향과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종교행위가 사회의 다른 분야와는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집단 사이의 관계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또 한 지역 내에서도 시기에 따라 종교적 다원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다원화가 가져다 주는 문제를 분석할 때 특정한 지역의 정치적, 혹은 경제적 조건을 역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 종교적 다원화의 의미와 파급효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지는 지형적으로 독특한 사회경제적, 지리적 조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종교적 다원화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삼림자원을 채취하는 행위는 농업에 비해 훨씬 힘들어서 여러 사람이 서로 돕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무 자르는 것은 무겁고 위험하기 때문에 함께 작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가 상이한 사람들도 갈등을 피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삼림자원은 마을의 공동자산이기 때문에 공유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마을 사람들이 사회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단결해야 한다(주종택 2000, 343). 따라서 FAPATUX와 함께 본격적으로 목재생산을 할 때부터 개신교도와 천주교도

사이에 차별이 없었다. 종교에 따른 전체 목재생산에 참여한 가구의 수와 가구당 평균 참여 인원을 보면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오히려 전체 가구나 인구를 고려할 때 조금 더 많은 개신교도들이 벌목이나 목재의 수송에 관여한다. 이것은 개신교의 평균연령이 천주교회의 평균연령보다 약간 낮기 때문일 것이다.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목재생산에 참여하기 때문에 받는 급료에 차이가 없다. 또한 산림지역에서 나온 수익금도 신도 수를 감안하여 세 교회에 골고루 분배한다. 예를 들어 천주교회에 3만 페소를 배분했으면, 나머지 두 교회에는 각각 1만 페소와 5천 페소를 배분한다.

이렇듯 공유자원과 관련해서 종교적인 문제가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된 것은, 개신교도들이 천주교도들보다 훨씬 열성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신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목재생산이나 마을의 공유자원에 관련된 조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누에보 소키아팜에는 다른 마을보다 삼림자원에 관련된 카르고가 많은 데, 공유재산위원회, UEEAFC, 제재소, 그리고 산림 감시위원회 등의 여러 카르고의 직책에 개신교도들이 소속되어 있다(주종택 2017, 143-145). 특히 이스라엘 교회의 목사는 과거에 목사가 되기 전에 ‘공유재산위원회’ 위원장 등 공유자원에 해당하는 많은 카르고를 역임했고, 마을을 위한 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는 제재소에도 개신교 신도들이 많다. 이렇듯 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공유자원과 관련된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참여한다.

공유자원의 이용 과정에서 두드러진 개신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종교집단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활성화 되어 안정적인 공유자원의 개발이 지속된다. 서로 다른 종교에 속하는 사람들이 삼림자원의 이용에 관여하면서 불공정한 행위가 줄어들고 공개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변화했다. 실제로 삼림자원을 개발하는 인근 마을의 경우에는 마을 관리들과 목재생산과 관련된 위원회의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저질러 많은 분쟁이 존재한다. 관리나 위원들이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부당 이익을 취하거나, 생산된 목재를 팔 때에

특정한 제재소에서 자금의 일부를 몰래 빼돌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을 관리들에 대한 불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한편, 벌목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문제는 벌목한 목재의 양에 대한 부정확하고 편파적인 기록이다. 측정하는 사람들이 고의로 양을 축소하여 기록하거나, 특정 인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양을 벌목한 것처럼 유리하게 기록을 해준다는 것이다. 한 마을 사람은 여러 교회 신도들이 목재생산에 참여하면서 생기는 협력효과를 이렇게 설명했다.

“서로 종교가 다른 집단의 사람들끼리 서로 관심을 갖고 벌목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들의 잘못을 감시하기 때문에 좋다. 과거에 천주교회만 있었을 때에는 관리들이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공개적으로 나서기 어려웠다. 지금은 관리들도 다른 교회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혼자서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하소연하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 마을 관리들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조금이나마 조심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 삼림자원과 관련된 관리들의 부정도 거의 사라져서 좋다”(Manuel, 68세).

물론 종교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작업한다고 해서 모든 부정부패가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관리들도 목재생산에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르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한다.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상호간에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할 소지가 줄어들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입장에서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종교를 이용하여 집단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서 안심이 된다고 한다. 실제로 몇 년 전에 벌목할 양을 개인에게 배분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이 생겨서 세 교회의 대표들이 협상을 해서 해결하기도 했다.

둘째, 목재생산 과정에 종교집단 사이에 협력과 경쟁 체계를 도입하여 벌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만을 줄일 수 있다. 개신교회의 세력이 어느 정도 안정된 1970년대부터 벌목을 하러 산에 갈 때 종교집단을 고려하여 벌목할 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동일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모아서 같은 구역에서 작업을 하

게 허용한다. 물론 항상 종교를 반영하여 구역을 지정하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이를 지키려고 한다. 과거에 종교를 고려하지 않고 마을 관리들에 의해 임의로 별목할 구역을 개인들에게 배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많았다.

“전에는 경사가 심하여 별목하기 위험한 구역이나 큰 돌이 있어서 작업에 방해가 되는 구역, 그리고 목재 수송을 위한 도로와의 접근이 곤란한 구역에 배정된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관리들에게 불만을 표시하거나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이런 구역에서는 나무를 자르려면 힘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작업시간을 맞추기가 불가능했다. 지금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넓은 구역을 담당하면서 특정인에게만 불리한 요소가 쏠리지 않게 되었다.”(Primitivo, 52세)

대체적으로 마을 사람들은 같은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끼리 일을 하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도 쉽고 불리한 요소도 힘을 합쳐 극복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 또 서로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잘해야 된다는 경쟁의식이 작용해서 일의 효율성도 증가한다고 말한다.

셋째, 종교의 영향으로 개인들의 윤리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특히 엄격한 종교적 규율을 강조하는 개신교회들은 신도들에게 책임감과 근면, 절제를 강조한다. 따라서 개신교도들은 가급적이면 시간과 날짜 등 약속을 잘 지키려 하는 경향이 있어서, 목재생산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시간 관념이 그다지 철저하지 않은 멕시코의 농촌지역에서는 작업을 정해진 일정에 맞게 수행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대체로 약속을 자주 지키지 않는 사람도 종종 있는데, 이들은 자신이 별목을 할 날짜를 지키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또 아침에 작업을 하러 갈 때에 출발시간을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산림지역으로 가려면 함께 트럭을 타야 하는 데, 일부의 사람들이 늦게 나오면 다 같이 산으로 가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특히 마을에서 영향력이 있거나 원로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늦게 온 사람들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개신교회 사람들이 시간과 약속을 지킬 것을 독려하

면서 예전보다는 사정이 많이 나아졌다고 한다.

“과거에는 마을에서 돈이 있고 사회적 위신이 높은 카시케(cacique)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도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었다. 만일에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지적하면 언제 자신에게 불이익이 닥칠지 모르는 실정이라서 불안했다. 그러나 지금은 개신교회가 생기면서 천주교회를 기반으로 하는 지위나 권력이 약화되어 카시케들도 행동을 조심하는 형편이다.”(Antonio, 59세)

시간이나 약속 이외에도 공동의 편의를 위한 일에도 관심이 증가했다. 특히 벌목 후에 정리 작업이 매우 중요한 데, 주변의 가치를 치우는 등 깨끗하게 마무리하면 다음 작업을 할 때나 자른 나무를 운송할 때에도 좋고, 작업자들이 다칠 염려도 줄어든다. 전에는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나무를 자르고 난 다음에 작업한 곳을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그 주변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제는 함께 남아서 같이 정리를 하니 환경보호에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의 작업도 방해하지 않아서 좋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보의 확대와 외부사회와의 교류 활성화도 종교적 다원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긍정적 현상이다. 개신교회는 신도들 간에 다양한 비공식 조직활동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개발시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외부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을 내의 개신교회의 청년회나 부녀회는 오아하카 시내나 다른 마을의 모임과도 수시로 접촉한다. 이에 반해 천주교회는 주기적으로 신부가 방문하여 미사를 보고 신도들을 관리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다른 마을이나 도시의 천주교회와 접촉할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천주교회에 비해 교세가 약한 개신교회는 외부의 개신교회나 교단, 혹은 다른 교파의 개신교회와도 자주 교류를 하여 세력을 확장하려고 시도한다. 특히 개신교회에 소속된 신도들은 각종 교육 혹은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오아하카나 멕시코의 다른 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많다. 이런 과정에서 개신교도들은 자연스럽게 목재생산이나 판매, 그리고 제재소의 운영과 관련된 외부의 정보를 천주교도들보다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벌목을 하는 과정이나

목재의 판매 가격 등에 대해 다른 마을의 사례를 수집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특히 마을에서 제재소를 구입할 때에도 개신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VII. 결론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종교가 일상생활에 깊이 관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마을의 정치적, 경제적 행위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실정에서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천주교도들이 정치적 지위나 경제적 자산을 빼앗길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개신교도들이 천주교도들과 대립하거나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면, 일부의 지역에서 보듯이 천주교도들이 중심이 되어 개신교도들에 대한 방화와 살인, 육체적 공격, 마을에서의 축출 등 매우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상당수의 마을에서는 개신교도와 천주교도들이 협력을 통해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더욱이 삼림자원 같은 공유자원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요소인 경우에는 개신교도와 천주교도 사이에 싸우기보다는 타협과 협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조사지의 경우에도 개종이 시작된 초기에는 소수의 개신교도와 천주교도 사이의 갈등이 부분적으로 나타났지만, 개신교도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오히려 대화와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두 종교집단 사이에 선의의 경쟁이 벌어져서 더욱 효율적으로 공유자원인 삼림자원이 활용되고 있다. 삼림자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안정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종교 집단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고 있다.

결국 조사지의 경우에는 종교적 다원화 이후에 두 집단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가 감소되었다. 오히려 마을이 소유한 공동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단결이 필요했고, 그래서 천주교도들은 개신교도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

게 되었다. 개신교도들도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천주교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마을 내의 주요한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된 까닭은 우선 이 마을은 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넓은 산림지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인구수에 비해서 마을의 공동토지인 산림지역이 풍부하고 소수의 힘으로 산 중턱에 있는 농지를 경작하기 어려워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지 않는다. 이런 실정에서 마을 사람들이 종교문제로 분쟁을 일으키면 경제행위에 엄청난 타격을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데 불리하기 때문에, 천주교도들과 개신교도들은 서로 협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신교도의 증가와 더불어 공유자원의 이용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화했다. 따라서 공유자원인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요인인 종교적 다원화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 종교적 다원화가 집단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기보다 경쟁과 협력을 자극하여 공유자원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증가시키고 사회 내부의 응집력을 키우는 데 기여했다.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정치적 조건이 개신교와 천주교의 화합을 유도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개신교의 등장이 마을의 경제발전을 촉진시켜서 제한적이지만 천주교도들에게도 새로운 세계관과 기회를 만들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종교의 유입과 다양한 개신교의 등장으로 종교적 다원화가 실현되어 조사지도 점차로 이질적인 사회로 변하고 있지만, 마을 사람들은 상호간의 경쟁을 통한 발전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제도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외부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하는데도 유리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종교적 다원화가 새로운 이념체계와 행동양식을 유도하여 공유자원과 관련된 경제활동에 반영되었다. 다시 말해 종교적 다원화가 집단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공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공유자원을 단순한 경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원과 종교적 다원화가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과 내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공유자원과 종교적 행위와 관념이 연결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

문화적 구조가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자원의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종교적 관습에 따라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발적 봉사와 합의에 의한 집합적 의사결정을 강화하게 되고, 이것이 공유자원의 이용과정에서 파생된 많은 매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경제행위를 다른 요소와 분리해서 분석할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혹은 정치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서 분석해야 한다는 총체론적 관점을 발전시킬 수 있다.

참고문헌

- 주종택(2000),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종교: 천주교와 개신교의 관 계」, 한국문화인류학, 33(2), pp. 331-360.
- _____(2004), 「멕시코의 사회변화와 개신교의 발전」, 라틴아메리카연구, 17(1), pp. 5-48.
- _____(2015), 「멕시코 농촌지역의 사회적 변화와 공유자원의 이용」, 이베로아 메리카, 17(2), pp. 69-117.
- _____(2017), 「멕시코 농촌 사회의 공유자원과 사회적 기업」, 이베로아메리카 연구, 28(1), pp. 117-156.
- Barsimantov, James(2009), “Vicious and Virtuous Cycles and the Role of External Non-government Actors in Community Forestry in Oaxaca and Michoacan, Mexico”, *Human Ecology*, Vol. 38, No. 1, pp. 49-63.
- Bastian, Jean-Pierre(1992), “Latin American Protestant Religions: An Object to Investigate and Construct”, *Social Compass*, Vol. 39, No. 3, pp. 327-354.
- Berkley Center for Religion, Peace, and World Affairs(2013), “Mexico: Persecution of Religious Minorities”, *Religion and Conflict Case Study Series*, Georgetown University.
- Bonner, Arthur(1999), *We Will Not Be Stopped: Evangelical Persecution, Catholicism, and Zapatismo in Chiapas*, Mexico, N.Y.: Universal.
- Bowen, Kurt(1996), *Evangelism and Apostasy: The Evolution and Impact of Evangelicals in Modern Mexico*,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Cahn, Peter S.(2005), “A Standoffish Priest and Sticky Catholics: Questioning the Religious Marketplace in Tzintzuntzan, Mexico”, *Journal of Latin American*

- Anthropology*, Vol. 10, No. 1, pp. 1-26.
- Charnley, Susan and Melissa R. Poe(2007), “Community Forestry in Theory and Practice: Where Are We Now?”,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36, pp. 301-336.
- Clarke, Colin(2000), *Class, Ethnicity, and Community in Southern Mexico: Oaxaca's Peasantr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leary, Edward L.(1997), “Introduction: Pentecostals, Prominence, and Politics”, Cleary, Edward L. and Hannah W. Stewart-Gambino(eds.), *Power, Politics and Pentecostals in Latin America*, Boulder, CO: Westview, pp. 1-24.
- Collier, George A.(1994). *BASTA!: Land and the Zapatista Rebellion in Chiapas*, Oakland: Food First.
- Cook, Guillermo(1994). “The Many Faces of Latin American Church”, Guillermo Cook(ed.), *New Face of the Church in Latin America*, Maryknoll, N.Y.: Orbis, pp. 268-276.
- Dodson, Michael(1997), “Pentecostals, Politics, and Public Space in Latin America”, Cleary, Edward L. and Hannah W. Stewart-Gambino(eds.), *Power, Politics and Pentecostals in Latin America*, Boulder, CO: Westview, pp. 25-40.
- Dow, James(2001), “Protestantism in Mesoamerica: The Old within the New”, James W. Dow and Alan R. Sandstrom(eds.), *Holy Saints and Fiery Preachers: The Anthropology of Protestantism in Mexico and Central America*, Westport, CT: Praeger, pp. 1-23.
- Escobar, J. Samuel(1994), “Conflict of Interpretations of Popular Protestantism”, Guillermo Cook(ed.), *New Face of the Church in Latin America: Between Tradition and Change*, Maryknoll, N.Y.: Orbis, pp. 112-134.
- Freston, Paul(2004), “Contours of Latin American Pentecostalism”, Donald M. Lewis(ed.), *Christianity Reborn: The Global Expansion of Evangelicalism in the Twentieth Century*,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p. 221-270.
- Green, Linda(1993), “Shifting Affiliations: Mayan Widows and Evangélicos in Guatemala”, Virginia Garrard-Burnett and David Stoll(eds.), *Rethinking Protestantism in Latin America*,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pp. 159-179.
- Gros, Christian(1999), “Evangelical Protestantism and Indigenous Populations”, *Bulletin of Latin American Research*, Vol. 18, No. 2, pp. 175-197.
- Gross, Toomas(2012), “Incompatible Worlds?: Protestantism and Costumbre in the

- Zapotec Villages of Northern Oaxaca”, *Folklore: Electronic Journal of Folklore*, Vol. 51, pp. 191-218.
- Hallum, Anne Motley(2003), “Taking Stock and Building Bridges: Feminism, Women’s Movements, and Pentecostalism in Latin America”,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38, No. 1, pp. 169-186.
- Kirk, John M.(1995), “Whither the Catholic Church in the 1990?”, Sandor Halebsky and Richard L. Harris(eds.), *Capital, Power, and Inequality in Latin America*, Boulder, CO: Westview, pp. 233-252.
- High, Casey(2016), “A Little Bit Christian: Memories of Conversion and Community in Post-Christian Amazonia”, *American Anthropologist*, Vol. 118, No. 2, pp. 270-283.
- Klooster, Dan(2003), “Campesinos and Mexican Forest Policy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38, No. 2, pp. 94-126.
- Kramer, Eric W.(2005), “Spectacle and the Staging of Power in Brazilian Neo-Pentecostalism”,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32, No. 1, pp. 95-120.
- Löwy, Michael(1996), *The War of Gods: Religion and Politics in Latin America*, London: Verso.
- Marroquín Z., Enrique(1995), “Los disidentes religiosos: ¿intolerancia o resistencia cultural?”, *¿Persecución religiosa en Oaxaca?: los nuevos movimientos religiosos*, México: Instituto Oaxaqueos de las Culturas, pp. 71-121.
- Montes García, Olga(1995), “Los conflictos religiosos en Oaxaca: una aproximación a su estudio”, *¿Persecución religiosa en Oaxaca?: los nuevos movimientos religiosos*, México: Instituto Oaxaqueos de las Culturas, pp. 23-70.
- Peterson, Anna(1996), “Religion and Society in Latin America: Ambivalence and Advances”,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31, No. 2, pp. 236-251.
- Ramírez, Alfredo(1991), “Protestantismo y conflicto social en una comunidad indígena”, Alicia Castellanos Guerrero and Gilberto López y rivas(eds.), *Etnia y Sociedad en Oaxaca*, México: Universidad Autonoma Metropolitana, pp. 91-98.
- Scarritt, Arthur(2013), “First the Revolutionary Culture: Innovations in Empowered Citizenship from Evangelical Highland Peru”,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40, No. 4, pp. 101-120.
- Scotchmer, David(2001), “Pastors, Preachers, or Prophets? Cultural Conflict and Continuity in Maya Protestant Leadership”, James W. Dow and Alan R.

- Sandstrom(eds.), *Holy Saints and Fiery Preachers: The Anthropology of Protestantism in Mexico and Central America*, Westport, CT: Praeger, pp. 235-262.
- Scheper Hughes, Jennifer and María das Dores Campos Machado(2016), “Spirits, Bodies, and Structures: Religion, Politics, and Social Inequality in latin America”,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43, No. 3, pp. 4-14.
- Stark, Rodney and Buster G. Smith(2010), “Conversion to Latin American Protestantism and the Case for Religious Motivatio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Research on Religion*, Vol. 6, pp. 2-17.
- Stoll, David(1990), *Is Latin America Turning Protestant?: The Politics of Evangelical Growth*,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Turner, Paul R.(1979), “Religious Conver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 18, No. 3, pp. 252-260.
- Westmeier, Karl-Wilhelm(1999), *Protestant Pentecostalism in Latin America: A Study in the Dynamics of Missions*, London: Associated University Presses.

주 중 택

순천향대학교
jtjoo@sch.ac.kr

논문투고일: 2019년 03월 04일
심사완료일: 2019년 04월 11일
게재확정일: 2019년 04월 29일

Religious Diversification and Utilization of Common Resources in Rural Mexico

Jong-Taick Joo

Soonchunhyang University

Joo, Jong-Taick(2019), "Religious Diversification and Utilization of Common Resources in Rural Mexico",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0(1), 1-32.

Abstract Many changes occur in Latin America as the number of people who convert from Catholic to Protestant increases. One of them is the growing conflicts within society between Catholics and Protestants. When Protestants take a stand against or hostile to Catholics, as seen in some Mexican communities, Catholics can harass Protestants by means of arson, murder, physical attack, and expulsion from the village. However, as Catholics and Protestants coexist within a society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many communities where they try to develop harmonious social relationship through competition and cooperation. Especially in communities where it is difficult to survive without cooperation due to poor socioeconomic conditions, new forms of cooperation are emerging with the participation of Catholics and Protestants. This type of collaboration is more important, especially in a community that attempts to efficiently utilize common resources, as each person feels that they can develop and manage resources better through joint efforts rather than through their own interests.

In the case of the research area, certain kinds of conflicts between a small number of Protestants and Catholics were found in the early days of the conversion, but dialogue and cooperation were emphasized as the number of Protestants steadily increased. In some cases, friendly competition between the two religious groups has intensified the effective use of common resources. Relations between the two religious groups have not deteriorated in that forest resources can not only substantially enhance 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community, but also improve the living standards of its members and help economic stability.

In Nuevo Zooquiapam, it was agreed that villagers needed unity in order to efficiently use the common resources owned by the village. So, Catholics believed that it was economically advantageous to seek harmony by forming friendly relations with Protestants. Protestants, led by clergy, also began to improve

relations with Catholics and actively participated in major communal events in the community. Also the community is located in mountainous areas and includes large common forest areas. Moreover, it is difficult to cultivate farmland halfway up the mountain with a small number of people. Therefore there is no sharp conflict of economic interests among the villagers. Under these circumstances, Catholics and Protestants felt it would be desirable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As if the villagers were involved in a conflict due to religious issues, it would be disadvantageous to make a living because of a huge blow to economic activities. More specifically, the use of common resources has changed more efficiently and systematically with the increase of Protestants. Thus, religious pluralism, a cultural factor,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alizing the economic value of common forest resources. Religious pluralism has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profits from common resources and developing the cohesiveness within society by stimulating competition and cooperation, rather than fostering conflicts and divisions within groups.

Key words common property, forest resources, religious diversification, Protestantism, Catholicism, Mexico